

한국형 다문화주의 정립 가능성 고찰 -최한기의 대동사상(大同思想)을 중심으로-

권오경

(부산외국어대학교)

《목 차》

1. 서론
2. 다문화주의의 기본 방향과 과제
 - 2.1. 다문화주의의 기본방향
 - 2.2. 다문화주의의 과제
3. 최한기의 기철학과 대동사상
 - 3.1. 기(氣)의 특징
 - 3.2. 대동사상
4. 대동사상과 다문화주의와의 관련성
5. 남은 과제-결론을 대신하여

<Abstract>

Kwon, oh-kyung. 2021. 7. 12. **A Study on the possibility of establishing Korean-style multiculturalism - Based on the accompaniment society of Choi Han-ki.** Multi-cultural Society and Education Studies 08, 1-28. Based on the Ki(energy) philosophy of Choi Han-ki, this paper examines the aspects of accompaniment society (Daedong society) that he asserts and examines the possibility of establishing modern Korean-style multiculturalism. Choi Han-ki, a late 19th-century Korean

practical science(Silhak) scholar, wanted to see a new world outside the world of Neo-Confucianism. By accumulating knowledge based on experience and extending it to a method of guessing and communication, he designed pneumatics(Kihak) to realize a Daedong society in which the natural energy of society, the world, and heaven and earth circulates and repeats from me. As a prerequisite for understanding Choi Han-ki's philosophy and realizing a multicultural society, the nature of multiculturalism as a flexible 'frame' is first examined, and 'between' in 'inter-' and the subject in between. Next, the concept of Choi Han-ki's 'Ki philosophy' and the core elements surrounding it, such as the types and communication methods of experiences, guesses, and rhymes, were reviewed, and ways to realize them were considered by linking them with multiculturalism. In conclusion, it was revealed that multicultural education and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through multicultural field experiences are necessary to pursue the expansion of the horizon of perception through the accumulation and expansion of experiences using perception. As a way to establish Korean-style multiculturalism and lead global multiculturalism, Daedong civic education, changes in multicultural policies, and methods for spreading overseas were also briefly suggested. As a follow-up work to these discussions, it was proposed to continuously examine the possibility of establishing Korean-style multiculturalism through Korean ideology and religion.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Key words] multicultural, Korean-style multiculturalism, Choi Han-ki, Daedong Thought, Pneumatics, communication

1. 서론

다문화사회에서 그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사회통합하는 방법으로 다문화주의와 상호문화주의, 그리고 문화간 의사소통 등이 중요하게 거론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들이 문화다양성에 의해 발생하는 각종 사회적 갈등을 즉각적이고 효과적으로 해결해줄 수 있는가 하는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에서 사용되는 다문화주의라는 용어가 함의하는 개념과 상호문화성, 그리고 소통과 관련한 제반 내용이 서양이론에 기대는 바가 크다.¹⁾ 물론 필요한 것이고 유용한 것이라면 가져다 사용하는 것은 반대할 일이 아니다. 그러나 한국사회문화 속에서 자생해온 문화다양성과 소통이론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거론된 바가 많지 않다. 그리고 한국의 다문화사회는 서구의 그것과는 다른 독특한 면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한국의 사회통합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뒷걸음치는 현상이 재현되고 있다. 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가에 대한 반문과 함께 현행 다문화주의 정책과 교육 제반에서 반성적 고찰을 필요로 한다.

한국의 다문화정책은 사회통합을 표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통합의 근거로 삼는 사상이나 합의된 가치, 혹은 이념의 전통성은 활발히 거론되지 않았다. 한국의 다문화사회현상의 역사가 그리 오래되지 않은 탓도 있지만 다문화주의의 이론과 정책, 교육 방법을 충분히 논의할 시간적 여유도 없이 서구의 것을 적용하기 급급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한국의 다문화는 그 이론과 사상의 뿌리나 근거가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세 가지이다. 하나는 지금처럼 서구의 이론을 더 정교히 분석하고 한국식으로 개조해서 적용하는

1) 본고에서의 다문화주의란 함은 다양한 개념과 함의를 지닌 다문화주의적인 용어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사용한다.

방법이고, 또 하나는 한국의 문화, 즉 한국의 역사와 사상, 민속에서 공동체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한국형 다문화주의를 찾아 적용하는 것이다. 나머지 하나는 이 둘을 결합, 절충하여 한국식 다문화주의를 수립하는 것이다. 겉으로 보자면 세 번째 방법이 제일 유리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첫 번째와 두 번째 방법의 결과가 충분히 논의되었을 때 가능한 일이다. 첫 번째는 그나마 많이 연구되고 적용된 바가 있으니 우선 급한 것은 두 번째, 즉 한국의 사상이나 역사적·민속적 정체성 속에서 한국형 다문화주의를 찾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유교, 불교, 도교와 같은 동아시아 전통사상과 종교철학, 그리고 한국 고유의 전통사상과 민속의 저변을 관통하는 한국형 공동체문화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작업의 첫 순서로 한국사회에 오래도록 영향을 미친 유교사상을 중심으로 한국형 다문화주의를 찾는 작업을 시도하고자 한다. 그런데 유교사상도 공맹(孔孟)사상 중심의 원유학이 있고 조선조 정치이념인 신유학이 있는데 한국유학사상에 많은 영향을 미친 성리학의 핵심사상인 이기(理氣)철학에 집중하고자 한다. 그러다보면 조선후기 실학사상과, 문화다양성사회를 예단한 최한기의 기(氣)철학을 만나게 된다.

최한기의 기철학에 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다. 다만, 기철학과 다문화를 직접 연계한 연구성과는 찾아보기 힘들다. 다만 이창욱²⁾, 이명수³⁾, 김후식⁴⁾, 이현정⁵⁾, 이지⁶⁾ 등의 글이 본고와 관련

2) 이창욱(2018), 「惠岡 崔漢綺의 氣運化論의 世界觀 研究」, 東國大學校 大學院 박사학위논문.

3) 이명수(2014), 「다문화적 공생 사유의 동아시아적 전개-장자의 사물인식과 최한기의 운화론을 중심으로-」, 『한국철학논집』 41. 한국철학사 연구회.

4) 김후식(1998), 「최한기의 대동사상 연구」, 경상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5) 이현정(2014), 「한국의 다문화모델을 위한 공감론적 접근」,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6) 이 지(2012), 「최한기의 기학(氣學):유가 형이상학의 실용론」, 이화여

이 있다. 그런데 이들 논문이 가진 공통된 한계는 최한기의 기철학을 이리저리 분석하였을 뿐, 현대 다문화사회의 이념적 표상으로 삼을 수 있는 구체적 논의까지 진행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물론 이들 논문들이 이것을 목적인 바는 아니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성리학의 이기철학의 원리와, 최한기의 기철학과 대동사상을 중심으로 한국형 다문화주의 정립의 가능성을 타진해보고자 한다. 특히 최한기의 기철학에 주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금의 한국사회나 19세기 말의 조선사회는 모두 격변기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현대 한국사회의 격변은 글로벌시대와 무수한 사람들의 이동에 의한 사회공동체의 변화에 말미암는다면, 19세기 말의 조선사회는 서양의 지식과 기술, 종교 사상의 유입에 근거한다. 변혁기는 흔히 사회운영의 철학을 어떻게 설명하고 표준을 잡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최한기는 19세기 신분제의 변동과 균열을 경험하면서 중국을 통해 유입된 서양의 최신 자연과학 지식들을 접하면서 성리학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수행한 결과 기학이라는 독특한 사상체계를 수립하였다. 21세기 오늘날 우리도 다문화주의라는 화두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다.

둘째, 이러한 시대적 환경에서 ‘변화와 수용’은 최대의 과제라는 인식을 수용한다면 우리는 최한기의 기철학에 한 번 더 주목하게 된다. 왜냐하면 최한기의 기철학의 핵심은 인간을 포함한 천지만물은 기(氣)로부터 시작되고 기의 활동운화에 따라 현상과 형질이 변화하고 결정되며 그 운화의 운영 여하에 따라 개인과 사회, 그리고 천지우주의 하나됨을 얻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문화사회의 핵심은 동질과 이질의 통합, 변화와 수용의 변증적 과정 등이다. 최한기의 기철학은 이와 같은 물음에 간접적으로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최한기의 기철학에 근거하여 한국형 다문화주

의 정립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다문화주의의 기본 방향과 과제

이 장에서는 최한기의 기철학을 고찰하기 이전에 다문화주의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며 전제로 삼아야 할 조건이나 속성은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 결과를 토대로 최한기의 기철학이 한국의 다문화사회, 나아가 지구촌 다문화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새로운 다문화주의 모델의 기초가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1. 다문화주의의 기본방향

다문화사회현상을 해석하고 가장 적절한 대응책을 구상하여 그것을 정책과 교육, 복지의 근간으로 삼는 큰 줄기가 다문화주의이다. 그래서 다문화주의는 일종의 ‘틀’ (frame)이다. 그리고 이 틀은 너무 형이상학적이거나 형이하학적이면 가변적인 다문화 현상을 수용하지 못한다. 그래서 틀은 일정한 원리나 규범을 갖춘 가운데 상황에 따라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가변성까지 지니고 있어야 한다. 유연한 틀, 이것이 다문화사회에 대응하는 다문화주의의 속성이어야 한다. 그 이유를 문화의 속성을 통해 좀 더 살펴보기로 하자.

문화는 살아가는 삶의 방식, 즉 ‘생활의 틀’이다. 이 틀은 ‘개념’ (概念)이라는 용어의 ‘概’ (평미레)에 해당한다. 평미레는 말이나 되로 곡식을 썰 때 윗부분에 쌓인 곡식을 밀어서 고르게 하는 원기동꼴의 나무방망이인데 평목(平木)이라고도 한다. 따라서 ‘틀’은 사회의 규범이 되는 도구이자 법칙이다. 그래서 문화틀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어떤 법칙이나 규범, 원리 중에서 정량적 개념

에 가까운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사람들이 암묵적으로 지키는 관습이나 풍속이 있는데 이것을 어기면 공동체에서 배제된다. 관습도 일종의 법에 준하는 문화틀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그 사례로 평목이 있어도 ‘덤’으로 더 주는 관습을 들 수 있다. 평목과 덤을 합쳐 곡물을 사고파는 것이 한국의 문화틀이다. 정량과 정성의 결합 형태로서의 문화틀인 것이다. 이렇게 되면 문화틀은 규범성과 가변성을 동시에 확보한다.

규범과 가변을 유교에서는 어떻게 보는가? 한국사상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이기(理氣)철학이다. 특히 조선조의 신유학(성리학)에서는 이(理)와 기(氣)로써 우주의 법칙, 천지인의 발생과 운행을 해석하고자 하였다. 이 중에서 이(理)는 선형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법칙, 규칙, 질서, 원리 등을 말한다. 반면에 기는 사물의 생성과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자이다. 기의 이합집산에 의해 우주만물이 생기고 변화하고 소멸한다. 그렇게 생기고 변하고 없어지게 하는 원리나 이치는 이(理)에 의한 것으로 보았다.

그런데 최한기는 선형적 규범인 이(理)를 기(氣)의 조리(條理)로 처리하였다. 기의 속성으로서의 이로 취급한 것이다. 이것은 성리학의 정통을 정면으로 부정했으니 혁명적 발상이다. 비유하자면 기철학은 서구의 현상론과 비교된다. 세계는 항상 변화 가능한 상태이고 그 변화의 원인 역시 변화를 가져오는 기의 원리로 본다. 다문화주의가 항상 열려있어야 하는 것도 다문화사회 자체가 변화 가능태이기 때문이다.

2.2. 다문화주의의 과제

다문화주의의 근간을 바로잡는 작업은 추상적으로 논의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실현하는 방법은 구체적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 소통의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다. 가령 나의 문화틀과 너의 문화틀이 개별적으로 존재한다면 나와 너의 틀이 최소한 공유하는

영역이 있어야 소통이 가능하다.⁷⁾ 그것이 말이든 글이든 몸짓이든 상관없다. 공유하는 지점을 지평확대하는 행위가 이루어져야 소통이 원활해진다. 공유 공간을 넓히는 행위를 우리는 언어문화교육, 혹은 다문화교육이라고 한다. 문화는 문화들에 의해 다양한 문화가 발생하고 변하고 소멸된다.

소통의 기본은 생각이나 감정 등을 서로 나누는 것이다. 나누는 것은 서로 통한다는 것이다. 통하기 위해서는 가교가 있어야 하고 중간 매개체가 필요하다. 이것을 ‘-간(間)’, ‘inter-’로 표현한다. 여기서 ‘사이’, 즉 ‘간’, ‘inter’를 편의상 A라고 하고, ‘-간’, ‘inter-’에서 ‘-’를 b라고 하자. ‘bA’, Ab ‘가 되는 것이다. b가 무엇인가에 따라 결과나 과정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것을 c라고 하자. 이렇게 해놓고 보면 가변의 주체는 b이며 드러나는 현상이나 결과는 c이다. A(사이)는 인간은 혼자서는 살 수 없는 공동체문화인을 전제한다. 자아에 대한 타자의 존재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타자를 인정하고 존중하여야 자아가 존재하고 인정받는 논리가 된다. 예를 들면, 인(仁)의 발현은 나 아닌 타자가 존재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상호존중주의가 성립되는 대목이다.

그런데 왜 나와 너가 존재성을 인정해야 하며, 존재성을 인정하는 방법은 무엇인가가 여전히 숙제로 남는다. 왜 우리는 서로를 존중해야 하는가 하는 숙제부터 살펴보자.

7) 비판적 합리주의자인 칼 포퍼(Karl Popper:1902-1994)가 언급한 틀(framework)은 선형적으로 어떤 고정된 형태의 틀이 문화권마다 존재한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그 문화 구성원은 그 틀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보는 한계가 있다. 즉, 전체주의적이고 개별적 존재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시각은 토마스 쿤의 문화 사이의 불가공약성(不可公約性)으로 전개된다. 다른 문화 사이에는 강인한 각자의 틀 때문에 소통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박일호, 『과학은 혁명적으로 변한다』, 박정남 외, 『생활 속의 철학』, 2011.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 한국의 理氣철학이다. 특히 문화틀을 설명할 때는 氣一元論의 사상이 유효하다.

A, 즉 ‘간(間)’, ‘inter’는 단순한 불변의 영역 혹은 ‘사이’로만 존재하지는 않는다. 사이 혹은 ‘틈’은 자체적으로 존재할 힘이 없다. 매개물에 따라 달리 존재하며 기능한다. 그 사이나 틈을 없애는 행위가 소통이라면 소통의 전제조건은 b(‘-’)이다. 하바마스처럼 합리성일 수도 있고, 리프킨처럼 공감일 수도 있다. 동양철학에서는 무엇이 여기에 해당하는가? 마음 간의 간격. 이 간격을 줄이는 것을 유교에서는 몰아일체(物我一體)라고 하였다. 물아가 이체(二體)이면 간격이 있는 것이다. 유학자는 물과 아, 즉 세상과 자아가 하나 되고자 하였다. 그 하나 된다는 것은 살아가는 방식, ‘틈’로서 하나가 된다는 것이다, 자연이 성실하게 사시사철 때에 따라 움직이듯 나도 게으름 없이 성실하게 살고자 하는 것, 그 본성 자체에서 몰아일체를 이루는 것이고, 성인군자가 되는 길이라고 보았다. 몰아일체를 이루는 방법으로 유교에서는 의(義), 예(禮), 경(敬), 신(信), 화(和), 중용(中庸) 등을 거론한다.

다문화사회에서 문제시되는 불화와 반목, 논쟁과 다툼은 몰아다체(物我多體)한 현상 속에서 나타나는 결과들이다. 한국유교사회에서는 사이를 좁히는 방법으로 자기수양을 통한 자기 변화에 중점을 두어왔다. 인격수양, 도의 실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과 과정은 격물치지 수신제가 치국평천하(格物致知 修身齊家 治國平天下)이다. 자기 변화는 달리 말하면 다문화수용성 제고에 해당한다. 서로 소통하면서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는 결국 ‘나’의 변화에서부터 출발한다. 최한기는 기철학에서 이것을 일신운화(一身運化)로 설명하였다.

이제 존재성을 인정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앞서 언급한 b는 우리 자신들이다. 나와 너, 우리와 그들이 된다. 문제는 나는 고정되어 있는데 타자인 ‘너’가 가변적이다. 너가 누가 되는가에 따라 간(間, inter), 즉 A하는 방법이나 공간 혹은 영역이 달라지고 c가 결정된다. 이때 동질의 공동체 안에서의 ‘너’는 문화들이 비교적 공유되는 부분이 많아 c가 혼란스럽지

않다. ‘너’의 대상이 더 넓은 공동체일수록 c를 예측하기 어렵다. 그래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b를 확대하지 않으려고 한다. c가 불안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강제화하는 것이 b의 확대를 위한 ‘교육’ 행위이다. 다문화교육은 b를 확대하는, 그래서 기대되고 예측 가능한 c를 지평확대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결국 다문화주의, 다문화사회, 다문화교육은 대상으로서의 ‘인간’ 영역 넓히기, 즉 사람사귀기나 이문화교접(異文化交접)으로 귀결된다.

이런 의미에서 기일원론을 주장하면서 소통을 통해 모든 사람과 국가가 천인운화(天人運化)하는 대동(大同)사회로 나아가는 방법을 제시한 조선조 후기 실학자 최한기의 기철학은 지금 우리에게 문화다양성의 길을 제시하는 하나의 이론으로 참고할 만하다. 규범과 가변, 소통, 이런 것들은 최한기의 기철학에서 중요한 요소로 다루어지기 때문이다.

3. 최한기의 기철학과 대동사상

앞 장에서는 다문화주의의 전제나 과제를 한국 유교의 이기철학에서 찾으려고 노력하였다. 이제 논리와 방법의 구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형 다문화주의의 정립 가능성을 검토해볼 차례이다. 그런데 논의가 복잡하고 통시적 접근을 하면 논점 자체가 선명하지 않고 논쟁의 오해가 많아진다.⁸⁾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사례를 찾고

8) 예를 들어 단군의 고조선도 홍익인간(弘益人間) 재세이화(在世理化)를 건국의 이념으로 삼았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고, 세상에 나아가 도리로 교화한다’고 하였다. 신라 말의 최치원은 유·불·도 삼교를 하나로 묶는 ‘삼교회극(三教會極)’을 주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삼교사상과 우리나라 전통사상을 접목하여 풍류도라는 사상을 확립했다. 최치원이 생각하는 풍류도의 매력은 ‘원융성(圓融性)’에 있었다. 그는 包含三教 接化群生이라 하였다. 최치원이 말한 접화군생은 모든 생명이 만나서 관계를 맺으며 변화한다는 뜻이다. 여기서 조민유화(兆民有和)의 의미를 가져올 수 있다. 국민이 화합

이를 중심으로 결론에 도달하고자 한다. 그 사례로 19세기 사상가인 최한기의 기철학에 주목한다.

혜강(惠崗) 최한기(崔漢綺:1803~1877)⁹⁾는 19세기에 활동한 실학자이자 과학주의자이다. 그는 성리학 전통에 구애받지 않고 성리학과 서양의 자연과학과의 소통을 추구하여 제3의 사유체계를 구성하였다. 유교의 용어를 사용하면서도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 것이 그의 기철학이다.¹⁰⁾ 최한기는 추상적, 허구적인 성리학을 배제하고 경험 위주의 기학을 주장하였다. 다문화사회는 허학(虛學)이 아닌 실학(實學)이다. 따라서 경험론을 주장하는 최한기의 기학은 다문화주의의 사상적, 현장적 이념을 구축하는 데 효과적이다. 그러나 당시 최한기는 근대의 분기점에서 현실과 경험의 지식 추구를 통해 지식의 생활화, 대중화를 모색하였지만 주목받지 못하였다.¹¹⁾ 그는 중국 중심의 천하관을 지구학으로 변환시켰고, 지구를 하나로 보는 우주관을 가졌다. 그가 『지구전요(地球典要)』를 저술할 때 영국에서는 다윈이 『종의 기원』을 저술하고 있었다. 본 절에서는 최한기의 기의 특징과 경험, 추측, 운화, 소통 등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그런 다음에 최한기의 대동사상을 알아보려고 한다. 이

하고 궁극적으로 지구촌의 화합을 이끈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최한기도 조민유화를 강조하였다. 세계시민과 더불어 조화, 평화를 유지한다고 하였다.

9) 최한기의 약력을 약술하면 다음과 같다. 1803년 서울 출생, 1825년(23세) 생원시 합격, 1836년(34세) 『神氣通』과 『推測論』을 중국 북경 인화당에서 간행, 1857년(55세) 기학 완성. 『地球典要』 13권 7책, 『宇宙策』 12권 6책 집필, 1860년(58세) 『人政』 25권 12책 집필, 1876년 강화도 조약, 1877(75세) 서거, 1971년 『명남루총서』(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편찬위원), 2002년 『증보 명남루총서』 편찬 간행.

10) 금장태(2012), 『실학과 서학』, 지식과교양, 221쪽

11) 김옥용은 그가 주목받지 못한 4가지 이유를 들었다. ① 벼슬을 하지 않았다. ② 가문이 소시민적 배경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③ 사승관계가 불분명한 독학자였다. ④ 그의 학문은 시대를 너무 앞질렀다. -최한기 저, 손병욱 역주(2004), 『氣學-19세기 한 조선인의 우주론』, 통나무 서문에서 인용

대동사상은 이상적 다문화주의 공동체에 해당한다.

3.1. 기(氣)의 특징

최한기의 기철학의 핵심은 최한기가 34세 때 저술한 『신기통(神氣通)』과 『추측론(推測論)』에 잘 나타나 있다. 『신기통』은 기의 체계를 설정한 것이고, 『추측론』은 인식활동에 대한 것이다. 최한기는 기학을 통하여 천체, 환경, 각국의 환경과 사람들을 통합하는 세계관을 확립하였다. 그의 만국일통(萬國一統) 정치이념은 『인정(人政)』에서 잘 드러나 있다.

최한기가 생각하는 기의 개념은 아래 글에서 잘 드러난다.

천지를 짝 채우고 물체에 꼭 젖어 있어 모이고 흩어지는 것이든 모이지도 않고 흩어지지도 않는 것이든 어느 것이나 모두 기 아닌 것이 없다.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는 오직 천지의 기만이 있고, 내가 처음 생길 때 비로소 형체의 기가 생기며, 내가 죽은 뒤에는 도로 천지의 기가 된다. 천지의 기는 광대하여 영원히 존재하고, 형체의 기는 편소하여 잠시 머물러 있다 없어진다.¹²⁾

우리가 몸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모두 천지의 기가 모여 된 것이고 죽으면 다시 천지의 기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최한기의 기는 신유학에서 보는 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 또한 기의 성질은 움직이는 것, 즉 활동운화(活動運化)¹³⁾하는 것이고 모든 천

12) 『神氣通』卷一, 「體通」, ‘天人之氣’. (전략) 充塞天地, 漬洽物體, 而聚而散者, 不聚不散者, 莫非氣也. 我生之前, 惟有天地之氣, 我生之始, 方有形體之氣, 我沒之後, 還是天地之氣. 天地之氣, 大而長存, 形體之氣, 小而暫滅(후략)

13) 활동운화는, 活은 생기요, 動은 진작이요, 運은 주선이요, 化는 변통이다. 최한기 저, 손병욱 역주(2004), 『氣學-19세기 한 조선인의 우주론』, 권2-84, 통나무, 279쪽.

체를 운행하게 하여서 만물을 창조하는 무궁함을 드러내지만 그 맑고 투명한 형질을 보지 못하는 자는 공허하다고 하고, 오직 그 생성의 변함없는 법칙을 깨달은 자만이 도(道)라 하고 성(性)이라 하였다.

그리고 최한기는 “기에는 형질의 기, 운화의 기가 있다. 별, 달, 만물, 신체 등은 형질의 기, 비 오고 춥고 덥고 건조한 것은 운화의 기이다. 기가 활동하는 작용의 측면을 운화(運化)라 하고 운화의 결과로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형태의 측면을 형질로 구분한다. 기가 하나의 동질적 존재이지만 모든 사물과 다양한 현상을 형상하는 근원임을 말해준다. 이 다양한 형태적 차이를 가능하게 하는 근거는 질(質)이다. 기와 질의 관계는 물과 얼음과 같다.”¹⁴⁾ 라고 하였다. 기의 변화가 운화인데,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한기가 내세운 기학의 효용은 천지인물이 일통운화(一統運化)하는 데 있다. 그는 “이렇게 되면 그 모습과 자취를 찾을 수 있고, 그 맥락이 서로 연결되어, 그 범위를 순승(承順)하고 그 궤도를 따라서 행함에, 둘로 갈라져 서로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근심과 시끄럽고 어지러운 폐단이 없어지게 된다.”¹⁵⁾고 하였다. 결국 최한기는 기를 이해함으로써 결국에는 대동사회, 즉 모두가 다 같은 천지의 기운을 받은 몸이기 때문에 상호소통하고 문화다양성이 통합되어 이상적 사회를 구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최한기의 기학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경험과 추측, 운화와 소통이다. 최한기의 경우, 기는 지각의 근본이고, 지각 혹은 지식, 인식은 경험을 통해 얻은 성과이며 경험이 없는 지각은 성립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리고 최한기는 인간은 눈이나 귀, 손, 입 등의 감각기관을 통해 얻은 경험을 주통(周通)이라 하였다.¹⁶⁾ 그래서

14) 금장태(2012), 위의 책, 228쪽.

15) 최한기 저, 손병욱 역주, 위의 책, 권2-88, 287쪽.

16) 이창욱(2018), 「惠岡 崔漢綺의 氣運化論의 世界觀 研究」, 동국대학

그는 인간이 얻은 모든 지식은 후천적 경험의 결과로 봄으로써 선
험적 지식으로서의 이(理)를 배격하였다.

이렇게 경험으로 축적된 지각이나 인식 혹은 지식은 추측으로
확산된다. 최한기는 인간은 경험이 쌓여진 기억을 바탕으로 자기
생각을 확장할 수 있다고 말하고, 이 과정을 추측(推測)이라고 하
였다. 귀납법과 연역법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 그의 추측법에는
'氣를 미루어 理를 헤아리는 것[推氣測理]' 과, '情을 미루어 性
을 헤아리는 것[推情測性]', '動을 미루어 靜을 헤아리는 것[推
動測靜]', '己을 미루어 人을 헤아리는 것[推己測人]', '物을
미루어 事을 헤아리는 것[推物測事]' 등의 다섯 가지가 포함되어
있다.¹⁷⁾ 그리고 『人政』에서 정의하는 '사람을 헤아리는 것[測
人]'은 '남과 나를 합치는' 것에서 의의를 갖는다고 하였다. 추
측(推測)에서 남과 나의 조화를 이룬다는 것은 타인의 기(氣)를 보
고 익히는 과정, 그리고 나의 기를 짐작하고 사유하는 과정을 계속
해서 반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타인의 기를 보고 익힌다는 것은
결국 외부 사물 및 사람과 교류하며 추측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비
단 자신만이 외부로 향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기에 '나' 라는
개인은 수많은 타인들과 접하게 되고 상호작용을 통해 추측을 형성
해나간다. 추측의 과정은 이 지점에서 '상호성'을 획득하게 된
다.¹⁸⁾

그리고 최한기는 4개의 기의 운화(運化)를 말하였다. 일신운화
는 나에게 있는 운화, 교접운화는 내가 타인(사물 포함)과 접촉하
여 생기는 운화, 통민운화는 현실세계에서 정치 통치 원리, 대기운
화는 큰 자연 우주의 변화를 말하며 천인운화라고도 한다. 4개 운
화의 성격을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¹⁹⁾

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쪽.

17) 이창욱, 위의 글, 3쪽.

18) 문석주(2018), 「최한기의 기학적 사회관 연구-: 민(民)의 위상과 역할
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표 1 운화의 성격>



최한기는 개인의 일신운화가 사회의 교접운화를 거쳐 궁극적으로 자연의 대기운화로 귀결해야 만국일통을 이룰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사회를 대동사회라 하였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사람은 누구나 천지 대기의 같은 기를 타고나기 때문이며, 소통이 가능한 이유도 같은 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았다.

최한기의 기학에서 소통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인식된다. 기는 감각기관을 통해 외부세계와 소통하여 지각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다시 외부세계와 소통하는 행위를 반복한다. 소통의 경험을 누적시키고 한 가지 경험으로 얻은 지각을 미루고 헤아리는 추측의 활동을 통해 지각을 형성하고 확충시켜 나간다. 소통할 수 있는 한계까지는 소통시켜가지만 그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한계를 넘어 억지로 소통시키려 하지 않는 것이 통의 방법이요 조건이다. 경험적 소

19) 인식론, 본체론, 실현론의 내용은 최한기 저, 손병욱 역주, 앞의 책, 352쪽 참조.

통의 한계를 넘는 데서 온갖 허위적 관념의 천착과 미신적 속임수가 나오기 때문이다.²⁰⁾

최한기는 그의 저서 『신기통』에서, “마땅히 남이 통한 것을 거두고 모아서 내가 통하지 못한 것을 통하게 하고, 내가 통한 것을 널리 알려서 남이 통하지 못한 것을 통하게 해야 한다. (중략) 남이 통하고 통하지 못한 것을 통합하여 그 실정을 소통시키고, 또 내 자신이 갖춘 통한 것을 통합하여 그 활용을 소통시키며 치우치고 막힘이 없게 한다면 바야흐로 통이라 할 수 있다.” 고 하였다.²¹⁾ 그리고 “하늘의 신기와 인간의 신기는 근원적으로 같은 신기이다. 그러나 사람이 스스로 얻은 지각에 따라 그 보는 바가 다르고 주장하는 바가 달라 소통의 정도가 다르다. 인간의 신기 즉, 신명지기는 형질에 따라 생겨나고 습염(習染)에 따라 소통한다. 신명지기가 형성되는 조건은 형질이고, 바깥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은 습염이다. 습염은 천지 자연 부모에게 받은 선천적 기와는 달리, 인간이 자신의 노력으로 성취하는 지각, 변화와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가변적 조건이다.” 라고 하였다.²²⁾

이와 같은 최한기의 언급은 각자 스스로의 경험으로 지식을 얻고 그 지식을 확산하는 가운데 남이 소통하지 못하는 것까지 내가 소통시켜주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즉, 소통의 주체는 ‘본인’ 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2장에서 살펴본 간문화, 혹은 인터컬처에서 간(사이)의 공간을 좁히는 주체도 각자 자신이어야 함을 언급한 바 있다. 그리고 사람의 외모는 타고난 기의 영향을 받지만 소통하는 방법은 후천적 노력으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20) 금장태, 앞의 책, 245쪽에서 재인용.

21) 『신기통』, <體統: 通人我之通>

22) 금장태, 앞의 책, 232쪽.

3.2. 대동사상

최한기는 사람은 모두 천지의 같은 기를 타고 나기 때문에 근본 대동하다고 본다. 그가 말하는 대동의 개념은 아래 글에서 잘 드러난다.

남과 나는 비록 나뉘었으나 자연히 같은 바가 있는데, 곧 천인 운화의 기가 그것이다. 이것을 들어 사무에 조처하면 남은 나와 같을 것이요, 또한 나도 남과 더불어 같을 수 있을 것이니, 그것을 한 나라에 베풀면 한 나라의 사람이 가히 더불어 갈아질 수 있을 것이요, 그것을 천하에 베풀면 천하의 사람이 가히 더불어 같을 수 있을 것이다. (중략) 천인운화기가 하는 바를 살피건대 같지 아니함이 없을 것이다. 이것을 일러 대동이라고 하는 것이다.²³⁾

천하에 더불어 같이 살 수 있는 기본 명제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모두 천지의 같은 기를 받았으며 그 기의 변화원리가 같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상은 근본 대동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최한기는 “털이 붉은 사람들의 나라에서 털이 붉어도 무슨 천함이 있겠으며, 얼굴이 꺼먼 사람의 나라에서 얼굴이 꺼멥더라도 곧 추한 면모가 아니다.”²⁴⁾라고 하였다. 나아가 “만일 이 기학으로 천하를 창도케 하면 무지한 사람과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같이 통민운화 가운데로 귀일할 것이니, 이것이 참된 대동의 추세이다. 어찌 반드시 한번 불러서 모두 따르고, 한번 지휘해서 모두 복

23) 최한기 저, 손병욱 역주, 앞의 책, 권1-100, 28쪽: 人我雖分, 自有其同, 卽天人運化之氣, 舉此而措處事務, 人與我同, 亦可我與人同, 施之於一國, 一國之人可與同, 施之於天下, 天下之人可與同. …… 須將天下人所稟受所須用之天人運化氣, 乃得其同. 問之於天下之人, 知運化者咸曰同, 不知運化者, 以爲不知同, 觀其所行, 無非同也, 是謂大同.

24) 『人政』 권1, 測人門.

중해야만 그것이 대동이겠는가?”²⁵⁾라고 함으로써 공동체사회에서 서로 소통하여 기가 순환반복되는 사회, 즉 갈등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대동사회라고 하였다. 이러한 대동사회는 힘이나 권력으로 통제되는 사회가 아님을 최한기는 강조하고 있다.

최한기는 이와 같은 대동사회가 형성되면 조금씩 다른 문화는 큰 공통점을 학습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으며²⁶⁾ 따라서 학습의 대상은 통민문화하는 원리, 즉 경험하고 추측하며 소통하는 법을 아는 것이다. 그러면 천하는 태평한 천인문화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고 보았다. 결국 대동사회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고 행동하는 것이 모두 의롭고 통용되어 막힘이 없는 세상을 사는 것이다.²⁷⁾

25) 최한기 저, 손병욱 역주, 위의 책, 권1-62, 117쪽.

26) 동서고금의 모든 나라에서 조금씩 다른 것은 풍토와 물산이고, 크게 같은 것은 神氣運化이다.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은 그 조금씩 다른 것에 바탕하여 자세한 행위와 습속을 이루고, 그 크게 같은 것을 이어서 倫綱과 政教로 삼는다. 인기문화(통민문화)에서 얻음이 있다면 세세한 행위와 습속은 모두 윤강과 정교에 녹아 들어갈 것이고, 이것으로써 통제하고 다스리는 방략으로 삼아 그 백성을 편안하게 함에 천하의 대동이다. 이 천하의 대동을 배움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동서남북의 나라가 모두 그 마땅함을 얻고 남녀노소의 행동이 모두 가하게 될 것이다.-최한기 저, 손병욱 역주, 위의 책, 권1-73면.

27) 만백성의 문화는 그것을 나누면 각각 사욕을 좇게 되고 통합하면 공정하고 밝은 것이 저절로 생겨나게 된다. 고르지 못한 사사로움은 통합의 도로써 절제할 것이고, 각각으로 쫓아가는 욕심은 통합의 의로써 재단하고 통제하여, 각각 그 사욕을 안정시킴으로써 정교의 공정하고 밝은 것을 이룬다면, 크고 작은 것에 통용될 수 있을 것이다. 통민문화의 도로써 자신을 수양하고 집안을 다스린다면 모두가 그 마땅한 바를 얻게 되어, 천하에 이르러서도 어느 곳에 처하든 마땅치 아니함이 없을 것이다.-최한기 저, 손병욱 역주, 위의 책, 권2-98면.

4. 대동사상과 다문화주의와의 관련성

최한기의 만국일통 대동사상은 노자의 “천지와 나는 함께 살고 있으니 만물과 나는 하나다.”에서 출발한다.²⁸⁾ 그는 “일신운화신 기로써 천하운화지기와 통하여 만물이 일체가 된다.”²⁹⁾고 하였다. 동일한 우주의 기를 타고 태어난 인간은 모두 동일하다. 그래서 인간세상은 근본 대동사회이다. 이것이 앞서 살펴본 최한기의 대동사상의 핵심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얼굴이나 기질이 다른데 이것은 후천적 영향에 의한 것이다.³⁰⁾ 그래서 차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인정주의가 성립하는 것이다. 그런데 차이를 인정하고 특히 약자를 보호하는 인정주의는 차이에서 비롯되는 힘의 논리, 즉 우열이나 주객 등의 존재적 당위성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차별이나 배제와 같은 동화주의도 성립한다는 논리가 된다. 인정의 논리가 상호 존재하는 것이다. 정주자와 외래자는 모두 상호 인정할 것이 있다. 그런데 차별 배제는 강자와 약자, 주류와 소수의 인정과 지속을 의미하기 때문에 항상 소수자, 이주자, 외래자에 대한 피해 상황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상호 인정이 이상적으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정의 논리는 완전하지 않다. 이를 극복하고자 상호존중주의가 등장하기도 하였다.

최한기는 인간은 근본 하나의 기에서 태어나고 하나의 기로(우주의 기)로 돌아간다고 보았다. 그래서 인간세상은 대동사회라고 보았다. 다만, 차이의 부각에 따라 대동사회가 성립되지 않았을 뿐, 지향하는 세상은 일통대동사회이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소통과 변통에서 찾았다. 최한기의 소통은 기의 소통이다. 기화는 기의

28) 『莊子』, 齋物論.

29) 『人政』 권 9, <善惡虛實生於交接>, 以一身神氣 通天地運化之氣 有萬物一體之義.

30) 최한기는 인간의 형질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하늘, 土宜(기후풍토), 부모의 精血, 見聞에의 물듦(習染) 등을 언급하였다.

변화를 말하는데, 나의 기와 너의 기가 상호 소통하여 새로운 기가 각자의 내면에 존재하게 된다. ‘간-’ 혹은 ‘inter-’ 에서 발생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너와 나의 기(氣)이다. 최한기의 기학에서 핵심은 경험과 추측에 의한 일신운기를 바로 알고 서로 소통하며 그것을 변통하여 새로운 지식과 인식을 축적해 가면 결국 천기운화에 화합한다고 보았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세상이 일통대동사회이다.

대동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최한기는 일신운화에서 통민운화, 천인운화로 나아감을 주장하면서 특히 통민운화를 강조하였다. 최한기의 기학을 다문화사회와 연관시켜보면 아래 <표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 2 기학과 다문화사회의 연관성>

문화영역	활동운화-다문화사회		목적	목표
천인운화계	일통대동사회		선, 정의, 공평사회	지구촌의 변화
통민운화계	공감 (내적 성숙: 인식의 확대)	소통 ³¹⁾ (상호작용)	문화다양성 수용	사회의 변화
	교화, 교육	외교, 교역, 지식, 기술의 교류		
일신운화계	인식의 확대		인식의 확장	개인의 변화
	경험(지각경험)	추측(상호작용)		

31) 通의 3단계는 범위의 통, 점진의 통, 증험의 통이다. 범위의 통은 어떤 사물, 사태에 대한 인식, 점진의 통은 일의 실천, 증험의 통은 그 인식한 내용과 실천의 결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神氣通』 권1, 體用, <通有不同>

개인의 기의 순환에 해당하는 일신문화세계에서는 경험과 추측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인식이 축적되고 확대되기 때문이다. 일신문화는 통민문화세계로 나아간다. 개인과 개인이 모인 공동체사회는 각기 다양한 습속과 경험을 지닌 사람들이 모여 공감하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교육과 상호작용 등이 필요하다. 통민문화가 잘 순환되면 모든 것이 하나로 통하는 대동사회가 전개된다. 이때는 원래의 천지의 기운이 온전한 상태에서 순환 반복된다. 이상적인 글로벌 다문화사회가 형성되는 것이다.

문화는 순환, 반복한다. 사회현상도 문화의 과정이나 단계, 현상에 따라 순환, 반복한다. 그래서 때를 잘 알아야 한다. 한 나라의 다문화도 그 나라의 사정에 따라 작동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각국, 각 지역의 다문화사회는 문화다양성이라는 속성과 발생, 현상이 제각각 다르다. 그래서 하나 된 글로벌사회 구현이 어렵다. 하지만 미래사회는 국가 간의 교류 없이는 지속가능성이 더욱 없다고 본다. 그렇다면 답은 더 넓은 우주적 차원에서 지구를 바라보는 것뿐이다. 특히 최한기는 과거나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다. 항상 활동문화는 ‘방금문화(方今運化)’이다. 이 방금, 즉 현재의 기의 흐름과 변화를 보고 추측을 통해 미래를 진단하는 예지력이 필요하며, 그에 따라 현재와 미래의 지구사회를 운영할 것을 주장하였다.

다문화사회진행 단계는 서구학자들이 언급하듯이 ‘부정, 불안 → 수용 → 적응’ 등의 단계로 말할 수도 있고, ‘자유주의적 보편주의 →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 → 가치다원주의 → 상호작용적 다문화주의’ 등의 단계별 적용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최한기의 경우, 그러한 일직선상으로의 진행형 단계보다는 문화의 보편적 원리인 반복, 순환으로 세상을 본다. 그렇다면 다문화사회현상도 반복 순환의 논리로 접근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자국중심주의 → 가치중심 상호존중주의 → 절대 보편적 다문화주의 → 자국중심주의’로의 회귀 등의 과정을 설정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것은 천기의 문화에 의

한 것이지만 人政에 의한 것, 통민하는 위정자의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았다. 사람을 잘 뽑아 적재적소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이 그래서 중요하다.

5. 남은 과제-결론을 대신하여

18세기 후반은 그 어느 시대보다 외세의 침략 앞에서 국가의 존망이 위태로웠던 때였다. 그만큼 민족이라는 개념이 강하게 정치화되었고 문화는 쇠국으로 치달으면서 소통이 부재하였다. 서구 열강은 제국주의로 무장하여 식민지 건설을 위하여 앞다투어 열세한 국가를 유린하던 때였다. 강제적 문호개방이 다양한 문화 교류를 가져오던 때였다. 1877년에 세상을 떠난 최한기는 유학자 신분으로 새로운 지식을 접하면서 개화한 인물이었다. 그래도 그의 머릿속에는 유교가 자리 잡고 있었고 왕권중심의 국가 체제 이외는 생각하지 못했던 학자였다. 그러나 그의 위대함은 전통사회의 아이콘이라 할 수 있는 내적 동질성, 즉 민족중심주의와 외적인 경계설정, 즉 국가 단위의 독자성을 극복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나아가 그는 통공역사(通功易事)를 주장하여 국제무역의 활성화와 분업화, 사농공상 직업의 동일한 가치, 그리고 각자의 역할을 중시하는 사회정의를 주장하였다. 유학자이면서도 기학을 내세워 성리학을 탈피하였고 인문학을 하지만 자연과학에 의지하면서 새로운 사회, 열린 우주시대를 내다본 미래학자였다. 에드워드 윌슨이 언급한 ‘통섭’의 세상을 미리 보여준 학자였다.

지금까지 최한기의 기학과 대동사상, 그리고 다문화와의 연계성을 살펴보았다. 최한기의 기철학을 요약하면서 한국형 다문화사회 정립과의 관계를 성글게나마 제시함으로써 결론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최한기는 경험주의자이다. 지각을 이용한 경험의 축적과 확장을

통해 인식의 지평확장을 추구한다. 따라서 한국형 다문화주의 정립에서는 경험, 즉 현장실습, 인턴 등의 만남을 통한 실재를 바탕으로 하는 다문화교육, 세계시민교육이 전개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최한기가 주장하는 교육이다. 교육을 통해 각자 스스로 시민에서 지구촌 구성원으로 성장한다. 그리고 교육의 중심은 체(禮), 지(知), 신(信)이다. 이는 기학에서 말하는 일신문화에 해당한다.

경험의 축적, 확장과 더불어 필요한 것이 소통이다. 소통은 최한기의 기학으로 보면 교접문화에 해당한다. 소통은 소통하는 방법, 즉 의사소통능력을 길러야 가능하다. 그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경험과 추측을 통한 인식의 확대이다. 추측은 소통 중에서도 변통에 해당한다. 변통에 능하면 교접문화가 천인문화(세상 돌아가는 이치)로 나아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추측은 변통을 통해 상대를 이해하는 능력을 강화시켜준다. 이것을 공감능력이라고 한다.

모든 것은 나로부터 출발한다. 그래서 기학은 자기성숙을 통한 대동사회 구현의 실천철학이다. 나의 경험이나 추측으로부터 출발한 인식은 남을 만나는 소통과정을 거친다. 소통이 가능한 것은 같은 천기를 나누어 가졌기 때문이다. 간혹 시대나 지역의 격차로 인하여 소통이 어려울 때는 변통을 해야 한다. 대인관계를 통해 얻은 새로운 인식은 다시 나로 돌아와 내가 천지문화로 나아가는 동력이 된다. 나와 남이 융화된 상태이다. 내가 이러한 노력을 할 때 남도 나로 인하여 소통하면서 천지문화로 나아가는 과정을 거친다면 대동 화용사회를 구현할 수 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것은 개인의 평온한 삶과 국가와 세계의 평화롭고 평등한 세계, 공정과 정의가 바탕이 된 지속 가능한 지구촌의 번영이다.

한국형 다문화주의를 가칭 일통대동주의라고 하자. 그러면 이 대동은 세계 다문화주의를 선도할 수 있는 K-다문화주의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지구촌 사회는 저마다 처한 상황이나 추구하는 바가 다르다. 그러나 다양한 현상 속에서도 보편적 윤리가 존재하듯이, 지구촌 사회가 공통으로 추구하고 지켜야 하는 질서는 존재

해야 한다. 이것이 대동주의라면 세계 각국은 이 대동주의를 근간으로 저마다 처한 환경과 이념을 대동주의와 연계하거나 융화하여 각기 다양한 방법으로 다문화주의를 실천할 수 있다. 이것이 최한기가 언급하는 변통을 통한 천인운화일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것이 가능할까? 무엇보다 대동시민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경험을 위한 현장실습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각을 통한 실제적 인지 능력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소통을 위한 교육은 이문화간 의사소통교육이 역시 필요하다. 추측을 위해서는 추리하고 비판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형상화, 추상화, 유추 등이 있을 수 있다. 최한기는 수학을 매우 중시하였다. 그가 자연주의철학에 심취한 이유이기도 하다. 공감교육을 위해서는 역지사지하는 태도 교육, 정서교육, 감정이입법 등이 교육되어야 한다. 다문화전문가 자격증 과목에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법무부 일변의 자격증제도를 여타 영역(부서)가 요구하는 과목들로 통용합하는 혁신이 필요하다.

교육의 장이 있어야 이러한 교육을 실현할 수 있다. 우선은 전국에 산재한 사회통합센터나 다문화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을 적극 이용할 필요가 있으며, 센터에서 실시 중인 교육 내용을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 센터에서 대동시민교육을 국내인, 이주민 모두에게 실기해야 한다. 한국인이 왜 이런 교육을 받아야 하는가 하는 물음은 우문에 해당한다.³²⁾ 기철학은 개인의 성장을 담보로 세계시민, 대동사회 건설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내가 곧 남이고 남이 곧 ‘나’ 라는 생각이 대동이다. 기학에서는 그렇게 본다.

32) 한국은 사회통합정책을 펴고 있다. 사회통합정책은 이민정책, 외국인정책, 다문화정책이라는 용어와 유사어로 사용되는 점에서도 느껴듯이, 한국의 다문화정책은 이민자로서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에 중점을 둔다. 자국민 대상 세계시민교육이 약하다는 것이다. 이것이 다문화 수용성 저조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기철학에서 언급하는 국가가 일신운화와 교점운화, 천인운화와 같은 활동운화의 이치를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 이외의 외국에서도 한국형 다문화주의를 확산시켜야 한다. 당분간은 세종학당 같은 기관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 UN이나 UNESCO와 같은 기구에서 만국일통 대동사회 교육을 지구촌 전역에 실시하도록 한국형 다문화주의사회를 선도해야 한다.

이러한 논의가 조금이라도 가능하다면 다음 단계의 작업으로 동양사상이나 한국사상, 그리고 한국민속사회의 공시적 통시적, 접근을 통한 한국형 다문화주의를 찾고 이를 다문화정책 다문화교육, 그리고 다문화수용성 제고를 위한 다문화시민교육 등의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결국 ‘민족문화와 다문화’ 라는 상호 대립되는 문제를 정면 돌파하면서 이 두 문화를 통합하여 세계시민사회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한국형 다문화주의를 찾는 데 기여할 것이다.

참고문헌

- 權五榮(1999). 惠岡 崔漢綺의 學問과 思想 研究. 집문당.
- 권오영(2000). 혜강 최한기:동양과 서양을 통합하는 학문적 실험. 청계.
- 권오영·손병욱 외(2000). 혜강 최한기. 청계.
- 금장태(2012). 실학과 서학. 지식과교양.
- 김용옥(2015), 讀氣學說: 최한기의 삶과 생각, 통나무.
- 대동문화연구원(2002). 증보 명남루총서. 성균관대학교동아시아학술원.
- 박희병(2003). 운화와 근대: 최한기 사상에 대한 음미. 돌베개.
- 야규 마코토(2008). 최한기 기학 연구. 경인문화사.
- 유생진(2008). 崔漢綺 氣學 研究. 경인문화사.
- 이종란(2008). 최한기의 운화와 윤리. 도서출판 사철.

- 이현구(2014). (동서양 학문을 융합하여 지구촌 시대를 대비한) 최한기. 민속원.
- 임부연(2013). 정약용 & 최한기: 실학에 길을 묻다. 김영사.
- 임형택(2009). 문명의식과 실학-한국 지성사를 읽다-. 돌베개.
- 채석용(2008). 최한기의 사회철학. 한국학술정보.
- 최영진(2000). (조선말 실학자) 최한기의 철학과 사상. 철학과현실사.
- 최영진(2000). 최한기 이기론에 있어서의 이의 위상, 조선말 실학자 최한기의 철학과 사상. 철학과현실사,
- 최진덕(2000). 혜강 기학의 이중성에 대한 비판적 성찰. 혜강 최한기, 청계.
- 최한기 지음, 이종란 옮김(2014). 운화측험運化測驗, 한길사.
- 최한기 지음, 손병욱 역주(2004). 氣學-19세기 한 조선인의 우주론. 통나무.
- 한형조 외(2013). 500년 공동체 움직인 유교의 힘. 글항아리.

<논문>

- 강원모(2005). 최한기의 기화적 인식체계와 교육관, <교육연구> 19, 공주대학교육연구소. 1쪽-14쪽.
- 권오경(2018). 다문화사회통합을 위한 아시아 구비문학 활용 방안, <국학연구론총> No.21, 태민국학연구원. 9쪽-40쪽.
- 김봉진(2006). 최한기의 기학에 나타난 공공성, <정치사상연구> 12-1, 정치사상연구회. 3쪽-55쪽.
- 김태오(2011). 소통의 교육철학: 하버마스의 ‘의사소통’과 惠岡의 ‘神氣通’의 비교를 중심으로, <교육철학> 45호, 한국철학회. 31쪽-63쪽.
- 문석주(2018). 최한기의 기학적 사회관 연구-: 민(民)의 위상과 역할을 중심으로, 이화여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병섭(2011). 한국의 다문화주의 성공조건, <사회와 철학> 22호,

- 사회와철학연구회. 197쪽-214쪽.
- 서옥수(2000). 최한기의 인식이론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서옥수(2018). 최한기의 소동론과 활용 가능성, <한국민족문화> 68호,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97쪽-121쪽.
- 신용식(2021). 상호문화적 다문화교육의 철학적 근거 모색 : 현상학과 의사소통행위이론을 중심으로, 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창호 · 김영훈 · 홍기표(2010). 유교의 ‘忠恕’를 통해 본 다문화교육의 원리, <동양문화연구> 6집, 영산대학교 동양문화연구원. 175쪽-197쪽.
- 이 지(2012). 최한기의 기학(氣學):유가 형이상학의 실용론,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명수(2014). 다문화적 공생 사유의 동아시아적 전개-장자의 사물인식과 최한기의 운화론을 중심으로-, <한국철학논집> 41. 한국철학사연구회. 247쪽-270쪽.
- 이명수(2007). 최한기 氣學의 ‘運化’와 담사동 仁學의 ‘通’ 개념에 보이는 인식의 공유 문제, <유교사상문화연구> 34, 한국유교학회. 307쪽-337쪽.
- 이인화(2020). 19세기 자연과학적 기철학의 문화공존 윤리 : 담헌, 다산, 혜강의 이기론(존재론)을 중심으로, <동서철학연구> 97권, 한국동서철학회. 81쪽-106쪽.
- 이창욱(2018). 惠岡 崔漢綺의 氣運化論의 世界觀 研究,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현정(2014). 한국의 다문화모델을 위한 공감론적 접근,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승희(2008). 유교에서 본 다문화교육 시론, <유교사상연구> 34집, 한국유교학회. 103쪽-128쪽.
- 최성환(2008). 다문화주의의 개념과 전망, <철학탐구> 24집. 중앙대 중앙철학연구소. 287쪽-310쪽.

필자 소개

성 명 : 권오경

소 속 : 부산외국어대학교 아시아대학 한국어문화학부

주 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361 센텀삼환아파트 104-1408
[우편번호] 48062

전화번호 : 010-6664-7352

전자우편 : kok7352@hanmail.net

투고일: 2021. 7. 12 / 심사일: 2021. 8. 6 / 심사완료일: 2021. 8. 18